

# 도, 이차전지 미래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 전북도·군산시·전북TP서 운영... 이차전지 기본 이론 이해·제작공정 등 교육

전북도와 군산시,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차전지 셀 제조 및 특성평가 교육'을 운영한다.

본 교육은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이며, 이차전지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제작공정과 평가분석 등 실습 경

험을 위한 교육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이차전지 시대와 전북산업의 발전 방향 △이차전지 산업 개론 교육 △이차전지 기술 개론 교육 △분석장비 운용 교육 △코인셀 제조 실습 교육 △파우치셀 제조 실습 교육 등이다.

이차전지 관련 교육은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이차전지 기업 재직자

등 이차전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연령 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10~15명 이내의 그룹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북TP 홈페이지(www.jtp.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이차전지인력양성지원센터를 방

문 또는 유선(063-260-936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주관하고 있는 전북TP 전북이차전지인력양성센터에서는 이번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특성에 맞는 '이차전지 소재부품 개발 및 가공 교육',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교육', '전극 및 배터리 설계 교육' 등 이차전지 관련 전문교육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는 이차전지 관련 교육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과 전후방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교육생들의 기초 지식 습득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해 빠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백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력의 양성과 공급은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에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과 현장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도가 보유한 여러 교육 사업에 더해 국내외 우수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와 군산시,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차전지 셀 제조 및 특성평가 교육'을 운영한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2023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 전북도내 3개소 '우수' 선정

### 하림·참프레·동우 등... 농식품부 주관

전북도가 9일 농식품부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닭, 오리) 등급 평가 결과 도내 닭 계열화사업자인 하림, 참프레, 동우 등 3개소가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는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및 준수여부, 상생협력, 사회기여도, 계열농가 만족도 조사 등 2022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8개소(닭 72, 오리 16)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13개소(닭 10, 오리 3)가 평가대상으로 닭 계열화사업자 우수등급에 전국 7개소가 선정됐고, 도내에서는 하림, 참프레, 동우 등 3개소가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급 평가 공개로 계열농가는 평가결과

가 우수한 사업자를 선택해 계약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인센티브 용자사업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2월중 신청해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농가지급금(가축비, 사육비 외) 등의 운영자금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돕는 것은 물론 수급안정을 도모해 가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열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운영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운영자금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책사항과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하도록 힘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권요안 도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간담회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방문, 시설 노후화 어려움 호소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방문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권요안 도의원을 비롯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권승환 이사장, 한상훈 사무국장과 전북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2012년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인 용진농협 매장을 개장한데 이어 이후 12곳이 더 늘어나 현재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지역농협 등이 13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직매장 중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자·모악·하가·둔산·삼천점은 총 1,312명의 조합원이 4,267개 품목의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으며 2023년 매출액 실적은 299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승환 이사장은 "효자·모악·하가·둔산점의 경우 개장한 지 10년이 넘어 직매장 내 쇼케이스 등

시설 노후화·고장으로 인해 상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쇼케이스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론했다. 또한 권 이사장은 "효자로컬푸드직매장은 연평균 1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출입구 교통 혼잡으로 직매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직매장 내 주차관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권요안 의원은 "로컬푸드 1번지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완주군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재도약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도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상생하는 노사문화 확산' 기업 현장간담회

### 전북도·도의회·완주군 등 관계자 방문...노사 상생 다짐

전북도, 전북도의회, 완주군 관계자들이 수소저장용기 개발·제조사이자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를 방문해 상생하는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은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오은미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순창·진보당),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부장 등이 운영길 일진하이솔루스 전무, 유유창 노동조합 지부장을 만나 간담을 나누었다.

간담을 통해 일진하이솔루스는 노사 갈등 해결 방법은 오직 상호 양보와 타협만이 대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내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오은미 의원은 "오늘 간담이 노사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기업은 더 높게 도약 할 것이다"며, "수소저장분야에서 세계적 이솔루스 전무, 유유창 노동조합 지부장을 만나 간담을 나누었다."

이어 문성철 전북도 과장은 "작년 전북도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사간 화합이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에 소재한 일진하이솔루스는 1999년 설립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슬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기술력을 축적해 탄소중립 수소연료전지를 생산, 현대차에 독점 납품하는 등 도내 수소 가치사슬의 핵심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주시에 국내 최초로 타입4·450bar 수소 튜브트레이러(수소 운송용기)를 납품하기도 하는 등 수소물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소방본부, 내달 12일까지 '반부패·청렴주의보' 발령

전북소방본부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4일간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반부패·청렴주의보'는 명절, 승진심사, 연말연시 등 주요 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부패·청렴 위해요소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효과적인 청렴 실천

을 위해 발령된다. 도소방본부는 설 명절 기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내용은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인방기실천'이다.

세부내용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 수수 금지 △설 명절

직원 간 선물을 최대한 마음으로부터 주고받기 △관행적인 부정청탁과 '떡값' 명목의 금품·향음 등 수수 금지 등이다. 도소방본부는 복무·공직기강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